

로마서 묵상 9
(12/3/2020, 목)

찬양: 268(202)(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로마서 1:24-27

말씀에 대한 이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최악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임한 결과를 언급합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정욕대로 내버려 두심. 24-25 절 -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욱되게 하게 하셨으니 25.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본 구절에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다양하게 나타냅니다. 최악된 인간은 “마음에 정욕”과 “더러움”에 빠져 있는 존재이고, 자신들의 몸을 서로 욱되게 하는 존재입니다. “정욕”은 내면적이고 소극적인 마음의 최악을 의미하고, “더러움”은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실제적인 탈선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욱되고 하고 서로를 욱되게 합니다. 이것은 당시 성적 범죄를 통해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타락하게 한 것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영적 순결을 지키기를 원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사회에 많이 세워진 공중 목욕탕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물리는 여관도 피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최악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의 진리”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가지신 진리’ 라는 의미라기 보다는, 하나님이 진리가 되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최악된 인간이 진리되신 하나님을 마치 물물교환 하듯이 거짓과 바꾸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진리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양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는 세상의 소리와 바꾸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섬깁니다. 최악된 인간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얹히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주인이 되게 합니다. 사실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최악된 인간들을 ‘내버려 두었다’ 고 말씀합니다. “내버려 두사” 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버리다’, ‘포기하다’, 혹은 ‘넘겨주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강력한 징계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버려 두심은 심판을 그냥 당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되므로, 내버려 두심 그 자체가 곧 강한 심판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난 인간. 26-27 절 - 26.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욱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27.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두 구절은 최악된 인간의 최악 가운데 특히 성적 타락을 언급합니다. 인간의 성적 타락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행해졌는데, 오늘 본문은 동성간의 성관계를 묘사한 것입니다. 26 절에 기록된 “부끄러운 욱심” 이라는 표현에서, “욕심” 이라는 말의 원어를 직역하면 ‘욕정’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기 의지로 다스리기 어려운 강한 성적인 애착’을 의미합니다. “역리로 쓰며” 라는 표현은 자연질서를 거슬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자연의 질서인데, 타락한 여성들이 동성간에 성적 관계를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27 절에서도 “남자가 남자와 더

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라고 표현함으로, 타락한 남자들 역시 동성간에 성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 역시 자연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구절을 통하여, 당시 로마제국 내에서 만연하던 성적 타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은 이성 간에도 자행되었지만, 그것을 넘어 자연질서를 거스르는 변태적인 모습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타락한 인간의 여러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가 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며, 그 가운데 동성간의 변태적 성관계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상당한”**이라는 말은, **‘반드시 ... 해야 하는’**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그들은 그 일로 인해 반드시 받을 수 밖에 없는 어떤 일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상당한 보응”**이 무엇인지는 본문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타락의 상황에 빠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한 죄책감 혹은 절망감을 포함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에이즈를 비롯한 다양한 성병과 같은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며, 멈춤과 회개없이, 그리고 지켜야 하는 바운더리를 훨씬 넘어 극도의 타락에 빠진 인간은 영과 육에 임하는 심각한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와 자연의 질서는 성의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원리와 질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으로 살라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를 때, 길이 막힐 때, 혼돈이 올 때, 판단이 어려울 때, 그 때는 믿음 가운데 말씀의 원리대로 결정하고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구원의 진리와 함께 삶의 원리와 지혜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원리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을 때 문제를 경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라도, 일시적으로는 성공하고 잘되고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인생의 마지막은 결코 성공일 수 없고, 그 끝은 반드시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는,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종 승리와 궁극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짧은 육신적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삶이며,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참된 영혼의 복락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되신 하나님과 거짓된 것, 이상,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 바꾸고,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를 경고하고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합니다. 아울러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안에서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최악된 본성과 육신의 정욕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어해 달라고 기도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말씀의 원리를 생각하며, 주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게 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2. 패역해 가는 이 땅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진정한 영적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3.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팬데믹 상황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역사를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 (시 19:14).